

재창조는 없다(갭 이론 No): 간극 이론의 오류와 위험

출20:10-11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다. 히11:1-2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등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증언이 나오기 전에 3절이 먼저 나온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창조에 대한 믿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이 창조의 파워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시킬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창세기는 못 믿겠다. 확실한 믿음 아니다. 덜 떨어진 믿음이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아주 얇은 수준의 믿음이다.

히11:6도 창조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창조 시기

이 땅과 우주 공간, 그 안의 모든 것은 언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막10:6)

이 **창조의 시작**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신 창조 시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시점

19세기 중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창세기 족보와 연대에 근거하여 지구와 우주의 연령이 대략 6,000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일랜드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 (James Ussher, 1581-1656)가 정리하여 완성한 연대기처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는 창세기 족보와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추적하여 창조 시점을 기원전 4004년으로 산출하였고, 이 계산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틀은 지구의 생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젊은 지구’(young earth) 관점이었으며, 이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세계관이었다.

고대 문명의 기록들, 곧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의 역사 문헌들도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단위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전제하는 사고방식은 등장하지 않았다. 성경의 연대기는 당시 알려진 모든 역사적 기록들과 대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는 비신앙인들조차 ‘흙덩어리에서 생명이 우연히 나와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진화론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1859년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이 나오면서 진화론 등장

진화론의 핵심, 긴 시간이 있으면 무생명에서 생명, 단세포 생명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 가능
지구의 거대한 지층과 산맥의 형성, 오랫동안 균일하게 변화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천만 년, 수억 년, 심지어 수십억 년의 시간 혹은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indefinitely long age)이 필요하다. 균일론적 지질학

노아의 대홍수 같은 대격변 부인

진화론의 거센 물결: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이라는 전통적 기독교 연대관은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는 1814년 강의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와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사이에 광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와 창세기 1장 2절 사이의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지질학적 시대들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가 된 땅을 6일 동안 재창조 혹은 재정비하셨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질학이 요구하는 수억 년의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 속에 배치함으로써

문자적 6일 창조도 지키고 오래된 지구도 수용하는 일석이조의 해법처럼 보였다.

그 이후 영국의 저술가 조지 펨버(George H. Pember, 1837-1910)는 1876년 출판한 「지구의 초기 시대들」(Earth's Earliest Ages)에서 이 이론을 성경 신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 이후 20세기에 스코필드, 라킨, 럭크만 등이 재창조를 확산함
라킨의 재창조 도표(*)

1960년대, 미국 창조과학의 부상

존 윗컴과 헨리 모리스가 창세기 홍수 를 출간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 이 책은 '지질학이 요구하는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저자들은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요구하는 균일론적 전제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가정임을 논증하며, 방대한 지질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지구 대부분의 퇴적층과 화석이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난 약 1년 동안 형성되었다는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이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근본주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20세기 기독교 지성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을 계기로 현대 창조과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창조연구학회(Creation Research Society)가 설립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가 체계적인 연구와 출판, 교육 사역을 통해 젊은 지구 창조론의 과학적·신학적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근거들을 통해, 수억 년 지구라는 전제를 거부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young-earth creationism)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

이제 더 이상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성경 그대로 6,000년 전 창조를 믿는 신앙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는 1990년대 럭크만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운동이 들어오면서 자연히 재창조를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신자가 아니라는 수준에까지 도달함
말씀보존학회 등 창세기 1장 28절,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번역함,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오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오늘 재창조의 오류와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자세한 것은 더보기 링크의 재창조는 없다 책 참조 (*)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1: 창세기 1장 2절의 was는 became이 아니다

간극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첫머리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에서 ‘was’를 ‘became’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간극 이론의 전체 구조가 사실상 이 번역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로 묘사된다. 이것을 단순히 최초 창조 직후의 상태로 읽으면(was) 간극 이론은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became)로 읽어야만 완전했던 창조와 혼돈 사이에 심판과 파괴를 끼워 넣을 수 있다. (*) (*)

그러나 이 주장은 언어학적으로도,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입장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1. 킹제임스 성경의 증언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면서도 그 번역을 ‘became’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를 정밀하게 다룰 줄 알았던 당대 최고의 학자들

이었다. 그들이 'became'이 아니라 'was'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문맥과 문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었다.

2. 성경 본문의 용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구조의 '이접적 구절'(disjunctive clause)은 일관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접적 구절은 행동 서술이 잠시 멈추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 관련 인물이나 장소의 상태를 독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기능이다.

(*) 요나서 3장 3절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뒤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당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라는 설명이 삽입된다. 여기에서 아무도 'was'를 'became'으로 읽지 않는다. 사무엘기상 4장 15절에서도 소식 전달자가 엘리에게 도달하기 직전 "엘리는 구십팔 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더라."라는 배경 설명이 삽입된다. 이는 엘리가 갑자기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변화가 아니라 당시의 상태를 알려 주는 설명이다.

이런 데가 구약 성경에는 매우 많다. 창2:11-13, 첫째 강 이름 설명, 재창조는 없다 책 참조 창세기 1장 2절도 동일한 구조이다.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후,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설명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첫 번째 창조 명령으로 이어진다.

4. 소결

언어는 임의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was'를 'became'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단순한 번역 선호 이상의 문제이다. 이는 문법 구조를 무시하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용례를 거스르며,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뒤집는 행위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 올리는 '바른 해석'(exegesis)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결론을 정당화하려 외부에서 만든 의미를 본문 안으로 밀어 넣는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문법과 구조와 성경 전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창조 직후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이접적 명사절이다. 이 명백한 읽기를 거부하고 'became'을 도입하는 순간,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수억 년의 간극과 루시퍼의 반역, 전 지구적 파멸이 두 절 사이에 삽입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절을 따라 읽어야지, 절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며 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었다'(was)는 '있었다'(was)일 뿐이며, 결코 '되었다'(became)가 될 수 없다.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2: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 the earth'이다. 그들은 이 표현이 '다시 채우라'라는 뜻이므로 아담 이전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

1. 문제의 출발점

창세기 1장 28절의 '채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동사 말레(male)이다. 이 동사는 구약 전체에서 249회 사용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다시 채우다'(refill)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문제는 영어 단어 replenish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re-는 다시'라는 공식을 배운 탓에 무의식적으로 'replenish = 다시 채우다'로 단정한다.

(*) 그러나 라틴어 계통의 영어 단어들에서 접두사 're-'는 반드시 '다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replete(가득 찬), resplendent(눈부시게 빛나는), revere(깊이 경외하다, 다시 경외하다 아니다), resolute(단호한, 다시 아니다) 등에서 're-'는 '완전히, 충분히, 강하게'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replenish 자체도 라틴어 plenus(가득 찬)에서 유래하여 '완전히 채우다'를 뜻한다.

한컴 사전 replenish 채우다, replenished 가득 찬(*)

2. OED와 웹스터 사전의 증언

「옥스퍼드 영어 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은 replenish에 대해 '가득 채우다'의 의미가 1340년대부터 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1611년 시점에는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다. (*)

노아 웨스터의 1828년 영어 사전 초판은 replenish의 첫 번째 뜻을 ‘채우다’(To fill; to stock with numbers or abundance)로 정의하면서, 대표 예문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직접 인용하였다. 킹제임스 성경 출판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영어권 학자들은 이 구절의 replenish를 ‘채우다’로 이해하고 있었다.

3. 다른 언어 성경들의 증언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모든 영어 성경이 예외 없이 ‘fill’을 사용하였다. 1380년대 위클리프 성경은 ‘fille ye the erthe’, 1530년 틸데일 성경은 ‘fyll the erth’, 1535년 커버데일 성경은 ‘fyll the earth’, 1560년 제네바 성경은 ‘fill the earth’로 번역하였다.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이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füllet die Erde’,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 ‘llenad la tierra’, 프랑스어 올리베탕 성경은 ‘remplissez la terre’로 옮겼다. 모두 ‘채우라’이지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4. 성경의 ‘내장 사전’: 1장 22절과 28절의 비교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 자체 안에 있다. 창세기 1장 22절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fill)”라고 말하고, 1장 28절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replenish)”라고 말한다. 두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완전히 동일한 동사 연속 구조 “페루 우르부 우밀우”(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라)를 공유한다.

22절의 fill은 ‘처음 채움’이고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움’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문맥도 같고,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하며, 영어 단어조차 17세기 용례로 보면 둘 다 ‘채우다’의 의미 범주에 속한다. 더욱이 KJV 역자들은 같은 히브리어 동사 말레(male’)를 fill로 107회, full로 48회 번역하였고, replenish로는 7회만 번역하였다. 이들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를 ‘채우다’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통계로도 입증된다.

5. 소결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다산하라,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라는 다섯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청지기 사명의 선언이다.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에서 ‘다시 채움’이나 이전 인류의 멸망 후 재충원이라는 개념을 읽어 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후대에 달라진 영어 단어의 뜻을 17세기 본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씌운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3: 세 구절에 의해 간극 이론은 무너진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을 차치하고서라도, 간극 이론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세 구절이 있다.

이 구절들은 고도의 신학적 훈련이나 원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현이 단순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어떤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구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이는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적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표현이며, 어떤 예외 단서도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옛새 이전에 별도의 최초 창조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바로 이 구절에서 그것을 밝히셨을 것이다.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는 제외”라고 단서를 붙이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 ‘만들다’(asah)와 ‘창조하다’(bara)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옛새는 최초 창조가 아닌 재정비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동사를 동일한 창조 사건에

자유롭게 교차 사용한다(창 1:26-27; 사 43:7; 45:18). 또한 안식일 준수 명령은 창조의 모방에 그 신학적 기초를 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옛세 동안 일한다는 것이다. 옛세가 단지 '재정비 기간'이라면 이 신학적 기초가 흔들린다.

두 번째 구절: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다.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사실, 즉 재창조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였다는 점을 주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다.

간극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창조의 시작 → 수십억 년의 역사 →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 → 전면적 파괴 → 재창조의 여섯째 날 → 인간 창조. 이 구조에서 인간은 '창조의 시작'과 수십억 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하신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지자들은 이 '창조'를 '재창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창조'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창조'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두 복음서에 걸쳐 반복된다는 점은 이것이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언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의 권위는 결정적이다.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신 분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인간의 창조 시점을 '창조의 시작'으로 규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에서 '처음'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곧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을 의미한다. 만일 두 번째가 이미 존재했다면, 그것을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구조는 단순하다. 첫 번째 하늘과 땅 → 사라짐 →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두 번째 하늘과 땅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간극 이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미 두 번째 것이다. 첫 번째 하늘과 땅(루시퍼의 홍수로 소멸) → 두 번째 하늘과 땅(재창조) → 세 번째 하늘과 땅(새 창조). 이 체계가 옳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사라졌고"라고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처음(첫 번째)'이라고 말한다.

라킨 그림(*)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가 서로 대응한다. 처음 창조와 최종 갱신의 대응이다. 이 두 사건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형성한다. 만약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우주적 소멸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창조를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확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하는 원칙

성경 해석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어떤 구절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 명확한 구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같은 주제 곧 창조에 대해 더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조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 마가복음 10장 6절은 인간 창조의 시점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현재 지구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이 세 구절을 함께 놓고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그 안에 수십억 년의 간격과 루시퍼의 홍수를 삽입하는 해석은 근거를 잃는다.

재창조 결론: 성경적 교리로 성립할 수 없는 이론

어떤 교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교리를 지지하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교리가 성경의 다른 명확한 진술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간극 이론은 이 두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재창조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 본문이 간극 이론과 무관하거나 전혀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욱이 이 이론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단순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선언,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요한의 증언, 이 세 구절은 간극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비틀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이 다른 세 차원의 평가는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역사적으로 간극 이론은 19세기 균일론과 진화론의 압력 앞에서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려는 신학적 타협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언어학적으로 이 이론의 핵심 기동, 곧 창세기 1장 2절의 ‘was’를 ‘became’으로 읽으려는 시도와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읽으려는 시도는 히브리어 문법과 17세기 영어의 실제 용례 앞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이 이론은 창조의 선함, 노아 홍수의 보편성, 천사론과 인간론,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충돌한다. 사망이 아담의 죄 이전에 이미 수억 년 동안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삯인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복음의 논리는 그 토대를 잃는다. 간극 이론이 치르는 대가는 단순히 창세기 몇 절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 구조 그 자체이다.

럭크만 자신도 이 이론이 성경에서 ‘유추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유추는 “이것을 모르면 성경 신자가 아니다.”라는 절대 기준으로 굳어졌다. 한 사람의 추론이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될 수는 없으며, 한 학교의 체계가 성경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간극 이론은 ‘오래된 지구’라는 진화론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외부의 요구에 따라 성경 안으로 끼워 넣은 해석 체계일 뿐,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경은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하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간극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하나의 완결된 창조 서사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매우 좋았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왔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단순하고 장엄한 복음의 서사는 재창조 같은 자의적 해석의 삽입 없이도 완전하고 아름답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만들어진 ‘인간의 추론과 학파의 체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